

오스코텍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회사에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래는 오스코텍 제 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있었던 주주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주주분들과도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라이센싱 아웃 현황]

1. Adel-Y01은 현재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1상의 단회투여독성시험의 마지막 코호트를 투약 중입니다. 이를 마치면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복투여독성시험을 진행하며, 소규모이긴 하지만 약효의 확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수의 다국적 제약사와 작년부터 라이센싱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 세비도플레넵은 현재 임상 2상을 마친 ITP와 더불어 타 면역질환에 대해 복수의 제약사 및 바이오텍과 라이센싱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 연장을 위한 추가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의 현황]

1. OCT-598은 EP2/EP4를 타겟으로 하는 내성 항암제로서 동물실험에서 우수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우리의 가설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본 파이프라인은 이번 4월 미국암학회(AACR)에서 최초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2. OCT-XXX는 아직 타겟을 미공개 하고 있으며, OCT-598과 더불어 내성 항암제의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또한 이번 AACR에서 타겟과 함께 최초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3. 디스커버리 단계에 있는 미공개 수종의 파이프라인 모두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막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분야는 미개척 분야이므로 항암제의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회사 제노스코 상장의 대안에 대하여]

주주님들께서 홈페이지에 질의 및 제안하셨던 제노스코 상장의 세 가지 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자회사 제노스코와의 합병안** : 이에 대한 검토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국내 3대로 폼을 통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제노스코 상장의 plan B로 생각하고 다양한 검토를 한 바 법적 관할 국가가 다른 두 기업의 합병은 불가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노스코의 상장 관련하여 코스닥, 나스닥, 홍콩 증시 등을 검토하여, 코스닥의 밸류에이션이 개선

되었고, 한국 자본인 점, 그리고 한국거래소 상장유치팀의 제안 등을 검토하여 코스닥 상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 **주식 스왑을 통한 100% 자회사** : 밸류에이션 비율에 대한 제노스코 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스왑이 되려면 오스코텍의 신주 발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오스코텍 주주님들의 지분가치가 희석됩니다. 제노스코가 오스코텍의 100% 자회사가 되어도 2025년과 2026년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비롯한 운영 자금의 수혈은 불가피합니다. 그 이유는 레이저티닙의 연간 로열티는 연말 기준 다음 해 6월초에 입금되므로 시간의 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회사인 오스코텍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수혈이 불가피합니다.
3. **오스코텍이 제노스코의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 오스코텍이 보유한 현금의 상당 부분은 2022년 유상증자에 의한 것입니다. 즉 유상증자 당시 금융감독원에 자금의 사용 목적으로 제시한 연구개발비와 운영자금으로 한정된 소위 '꼬리표'가 달린 자금입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지원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긴급히 요구되는 제노스코의 자금 수혈을 할 수 없습니다.

[초다수결의제 폐지에 대하여]

2023년 2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올라왔던 사안입니다. 당시 표결 결과 초다수결의제를 유지하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주주총회의 의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본 안을 상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상법 개정 등이 이루어지면 본 안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외이사 주주제안에 대하여]

회사에 필요한 분야, 예를 들어 암치료 전문의, 세무, 회계, 법률 전문가 등 훌륭한 분을 주주 제안으로 해 주시면 회사는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주주총회 전에 추천을 해주시면 상호간에 면접 등을 통해 모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향후 주주총회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님들께 공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사항]

제노스코는 투자가 용이하다는 의견 : 상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외부의 투자 유치는 어렵습니다. 2024년도에도 수 개월간 힘든 과정을 거쳤으며, 상장이 무산된 회사에 Exit plan에 대한 우려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제노스코의 상장은 오스코텍이 유상증자를 통한 지원으로 인

한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 자금으로 현재 진행 중인 ROCK2 파이프라인인 IPF(특발성폐섬유증)의 하반기 임상 진입, CCM의 전임상 및 최근 각광받는 TPD(표적단백질분해제), DAC(항체접합분해제) 등 유망한 물질을 개발해 놓은 상태에서 우수한 후보물질의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를 이루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오스코텍의 기업가치 상승은 물론, 보유한 제노스코 지분을 활용한 유망한 바이오텍의 M&A,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나아가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의 재원이 될 것입니다. 우선 회사가 생각하는 방안으로 지난 3월 제1차 간담회에서 제노스코 상장 시 회사 보유의 제노스코 주식을 공모금액의 10~20% 범위에서 배당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27기정기주주총회에서 진행된 제2차 주주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일부 내용은 요약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이 추가되었을 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오스코텍에 보내주시는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주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